

GS칼텍스, 오만 정유기업 엔지니어 기술연수

GS칼텍스는 오만 국영 정유기업인 소하정유(Sohar Refinery)의 엔지니어 15명을 초청해 여수공장에서 7주간의 기술연수를 마쳤다고 5월13일 발표했다.

GS칼텍스는 2003년 9월 소하정유와 2010년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탁경영(TSS: Technical Service Support) 계약을 체결했다.

<화학저널 2005/05/16>